



#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

#부산 남구 #시설공사비 지원

## 오랜 고민이 담긴 들꽃이야기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이 거처하는 집에 재호나 당호를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오래 고민한 것이 이름입니다. 도서관의 모습과 가치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도서관의 철학을 담는 동시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다짐과 도서관에 임하는 자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 들꽃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꽃이 사람꽃이고 그 가운데 어린이청소년꽃이 가장 귀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보아 아름다운 것은 아이뿐 아니라 들꽃도 그러합니다. 들꽃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향기도 그윽하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바위 옆에서도 어울리고 나무 옆에서도 함께 하고 풀 옆에서도 어우러집니다.

## 아이들도 그러합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역시 스스로 빛나면서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각각 아름답고 귀한 들꽃 같은 아이들이 빛어내는 이야기가 있는 곳, 들꽃이야기 도서관은 모두에게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 의 2017년은 어떠했나 요?

도서관 문을 열고 어느 하루도 편할 날 없이 하루하루가 생  
존이었지만, 2017년은 시험에 드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임대  
료며 운영비 마련이 너무 힘들어서 도서관 문을 닫아야 하나, 내 역  
량이 여기까지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을 비밀 언덕으  
로 삼아 꿈꾸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긴급지원119사업이 도서  
관의 성장 모멘텀을 가졌다는 생각했습니다.



▲ 다락 공사 전

처음 제안서를 낼 때 두 가지 문제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도  
서관 운영비의 수입원인 관장의 강의가 겨울이면 없으니 해마다 겨  
울 석 달 월세는 밀리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2017년도 봄부터 월세  
가 인상돼서 어찌 해야 하나 고민하는 한편, 서가 확장이라는 도서  
관의 숙원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결국 서가 확장도 되면서 아이들  
이 책도 읽고 이리저리 숨을 수도 있는 다락을 선택했습니다.



▲ 다락 설치 공사 후

고민이 관장의 몫이었지 그로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활  
동가들과 동아리 회원, 도서회원을 막론하고 내 일처럼 나서주었습  
니다. 서로 연락해서 날을 잡고 순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책을 묶  
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아빠 동아리 부영이와 보름달 회원들이 옆구리에 장도리와 전등을  
끼고 오더니 마치 우렁 신랑처럼 자료실 전등을 다 갈아주었습니  
다. 기쁘기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관장은 책들이 갈 자리만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다락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이 2배로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은 날마다 도서관  
에 오고 싶어 하고 도서관에 오면 갈 줄을 모릅  
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멍하게 자료실을 내려  
다보기도 하고 다락 아래 서가에 앉아 책에 몰  
두합니다. 한번은 대구 대표도서관 주관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40분이 견학을 왔습니다.  
공간에 반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  
다. 이처럼 새로 생긴 다락에서 아이들이 즐거  
워하는 모습과 좋은 반응들을 볼 때면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들꽃이야기 작은도서관 의 2018년은 어떠한가 요?

다듬어진 공간, 확장된 공간에서 먼저 꿈을 꾸고 실현한 도서관으로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 작은도서관은 공간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 공간이 주는 아우라, 책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공간에서 엮어내는 이야기들은 그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과의 연대이며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듭니다.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너무 고맙습니다. 스스로 좋은 도서관, 멋진 도서관의 이용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책으로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는 멋진 사람들이 됩시다.

